

주제어 기반 분류에 관한 연구

- 미국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Word Based Classification of U.S. Public Libraries and its Implications

백지원(Ji-Won Baek)*

목 차

- | | |
|----------------------|----------------|
| 1. 서론 | 3. 적용 사례 분석 |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1 적용 방법 |
| 1.2 연구의 방법 | 3.2 분류 유형 분석 |
| 1.3 선행연구 | 3.3 청구기호 사례 분석 |
| 2. 주제어 기반 분류의 개념과 유형 | 4. 평가 및 시사점 |
| 2.1 개념 정의 | 4.1 효과 |
| 2.2 분류의 유형 | 4.2 문제점 |
| 2.3 주제명표의 유형 | 4.3 시사점 분석 |
| | 5. 결론 |

초 록

본 연구는 이용자 편의를 목적으로 기존의 DDC 분류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주제어 기반 분류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효과와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러한 시도에 대한 향후 국내에서의 논의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주제어 기반 분류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미국 공공도서관 사례 11개를 선정하여 새로운 분류법을 적용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제어 기반 분류의 유형을 구분하여 그 실행 시기, 시행 이유, 장서 규모, 적용 범위, 적용 과정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주제어 기반 분류는 도서관 이용과 운영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었으나 동시에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에서의 논의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서관계의 수용성, 국내 여건에 대한 고려, 적절한 유형 선택, 사서의 전문직에 미치는 영향, 주제명표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이용자 지원의 필요성 등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word based classification used in U.S. public librar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libraries. For this purpose, eleven U.S. public libraries using the word based classification system were selected and the specific classification types, their motivation, collection size, methods used in the conversion from DDC, and pros and cons were examined.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word based classification system may be categorized into the two types: Dewey-free or Dewey-lite and its application methods are different case by case. As a result, the positive impacts and implied problems of the word based classification system for library use and library operation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new system's implications on the Korean libraries were also discussed.

키워드: 주제명, 주제어, 주제어 기반 분류, 단어 기반 분류, 분류, 공공도서관, 도서관
Dewey Free, DDC, BISAC, Word Based, Classification, Word Based Classification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강사(jw_baek@naver.com)
논문접수일자: 2010년 9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0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11월 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179-201, 2010. [DOI:10.4275/KSLIS.2010.44.4.179]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는 전 세계 138개국의 200,000개 이상의 도서관이 채택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류법이다. 미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95%가 DDC에 의한 분류를 실시하고 있으며(Mitchell 2009), 국내의 경우 대학도서관의 70% 이상이 DDC를 사용하고 있다(윤희운 2007, 140). 또한 국내 대부분의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는 KDC는 사실상 DDC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개발된 분류법이라는 점에서 DDC가 우리나라 각종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서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도서관이 제공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서비스도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근래 들어 미국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장서의 분류 및 배가에 있어 DDC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기능을 축소하고, 대신 서점과 출판업계가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제명표목의 주제명으로 분류를 대신하는 사례가 속속 발표되면서 많은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논의의 발단은 DDC가 브라우징 방식의 검색이 많이 쓰이는 공공도서관의 대중 장서에는 적합하지 않은 분류법으로, DDC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좌절감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일반 이용자들이 동일한 주제라고 여기는 것들

이 학문분류에 기반한 DDC에서는 여러 주류(main class)에 분산되어 이용자의 관심 영역에 따라 브라우징하기 어렵고, 주제를 숫자로 변환시켜 놓아 직관적인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흔히 도서관과 비교되는 서점에서는 책을 이용자 흥미 혹은 관심에 따른 주제 항목별로 나누어 해당 주제어 아래 배가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보다 친숙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브라우징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점의 분류 및 배가 방식이 갖는 장점을 도서관에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로 2007년에 처음으로 DDC를 채용하지 않고 서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BISAC(Book Industry Standards and Communications) Subject Heading으로 서가 분류를 대신한다고 하는 도서관이 신규 개관하여 미국 전역에 걸쳐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방식은 주제어가 DDC 번호를 대체한다고 하여 'Dewey free(듀이 프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처럼 주제어가 분류의 역할을 하게 하는 방식은 장서의 규모가 크지 않아 브라우징 방식으로 자료 검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 대중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은 공공도서관 및 그 이용자에게 적합한 분류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주제어 기반 분류의 방식과 효과 등은 국내 공공도서관은 물론, 특히 근래 활발하게 진행 중인 작은도서관 설립과 관련하여서도 관심 있게 논의해볼만한 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주제어 기반 분류의 개념과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고, 적용의 실재를 분석하여 그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주제어 기반 분류에 관한 향후 국내

도서관 환경에서의 논의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첫째, 주제어 기반 분류에 대한 사례와 논의를 수집하여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2007년 이후 주제어 기반 분류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진 도서관들을 조사하여, 미국 내 공공도서관 11개 관의 사례를 선정하였다(표 1 참조). 실제로는 이외에도 주제어 기반 분류를 적용했다고 알려진 도서관들이 다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항목을 설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공표 및 문서화되고, 실제 목록을 통해 주제어 기반 분류가 확인되거나 담당자와의 확인을 통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경우만 사례로 채택하였다.

둘째, 선정된 사례를 주제어 기반 분류의 유형, 시행 시기, 시행 이유, 장서 규모, 적용 범위, 적용 과정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주제어 기반 분류의 명확한 의미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째, 사례 도서관의 주제어 기반 분류의 유형과 실제 분류 사례를 분석하였다.

넷째, 이상의 사례 분석을 통해 주제어 기반 분류 방식이 가져올 효과와 문제점을 밝히고, 특별히 국내 환경에서 논의되어야 할 측면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밝혔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 조사와 전자우편 교환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각 사례 도서관 홈페이지, 블로그, 관련 기사, 뉴스, 회의 발표자료 등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분석하고, 문헌 조사에서 불충분한 부분은 해당 기관 담당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보완하였다.

한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주제어 기반 분류를 적용한 도서관을 지칭할 때 도서관명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번잡함을 줄이기 위하여 도서관명의 처음 한단어로 축약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사례 도서관의 특정 분관만이 분석의 대상인 경우 해당 분관의 명칭을 사용하였고, 지역

〈표 1〉 주제어 기반 분류를 채택한 도서관 사례

도서관명	홈페이지 주소
Albany Public Library, NY	http://www.albanypubliclibrary.org/
Darien Library, CO	http://www.darienlibrary.org/
Delta Township District Library, Lansing, MI	http://www.dtdl.org/
DeWitt Community Library, NY	http://www.dewlib.org/
Frankfort Public Library District(FPLD), IL	http://www.frankfortlibrary.org/
Henry County Public Library, KY	http://www.henrylibrary.org/
Perry Branch Library, Gilbert, Maricopa County Library District(MCLD), AZ	http://www.mclaz.org/
Phoenix Public Library, AZ	http://www.phoenixpubliclibrary.org/
Rakow Branch of the Gail Borden Public Library District, IL	http://www.gailborden.info/
Rangeview Library District, Northglenn, CO	http://www.anythinklibraries.org/
Topeka and Shawnee County Public Library, KS	http://www.tscpl.org/

도서관 전체가 대상인 경우에는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여 적용 대상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1.3 선행연구

이용자의 편의를 강조한 분류에 대한 선행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이용자 관심에 따른 분류법(reader-interest classification)에 대한 각종 문헌을 검토한 Sapiie(1995)의 논문이다. 이 논문은 1980년~1995년 사이에 파악된 이용자 관심에 따른 분류법을 사용하는 동기와 방법, 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에 관한 15~30년 전 논의와 적용을 종합적으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apiie(1995)에 따르면 1980~1995년 당시 이용자 관심에 기반한 분류의 사례들에서 파악된 효과는 이용자들이 한결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이용 경험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도서관 이용자 수의 증가, 이전에 잘 이용되지 않던 자료의 이용 활성화, 자료 배가시 시간 절약, 장서 현황 파악의 용이함, 이용자 흥미 파악의 용이함, 항목 재조정 용이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 관심에 기반한 분류 체계는 모르는 것이 있어도 사서에게 다가가 묻기를 꺼리는 성인 이용자의 자료 이용에 도움을 주었고, 아동과 청소년 이용자들은 이 체계 하에서 이전 보다 독립적인 도서관 이용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한편, 근래에 논의되고 실행 중인 주제어 기반 분류를 본격적인 주제로 한 국내외의 학술적인 논문은 아직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주제어 기반 분류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는 부족한 반면, 듀이 프리가 처음 시도된 2007년 이후 각종 도서관계의 업계지, *Wall Street*

*Journal*이나 *New York Times*와 같은 시사 잡지, 미국 의회도서관의 블로그를 비롯한 다수의 도서관 관련 블로그 등을 통해 듀이 프리가 소개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Fister(2009)는 *Library Journal*에 기고한 'The Dewey Dilemma'를 통해 주제어 기반 분류를 진행하는 대표적인 도서관들을 소개하고, 100여명의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자료 검색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묻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을 한 50% 이상의 사서가 이용자들이 논픽션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고,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류 체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했다. 48.4%의 사서들이 주제어를 청구기호 레이블에 첨가하여 주제 영역을 나타내 주는 방법에 찬성했고, 26.9%는 단지 보다 나은 사인(sign)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이용자들이 훨씬 쉽게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11.8%의 사서들만이 DDC 방식에 따라 조직된 자료를 해체하여 서점과 같은 방식으로 브라우징이 용이한 주제항목에 따라 재분류 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이처럼 설문에 응답한 과반수 이상의 사서들은 이용자들이 DDC 분류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인지하고 있으며 완전한 듀이 프리 방식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주제어를 DDC의 보완적인 역할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가까운 정도로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DDC의 편집위원장인 Joan S. Mitchell은 도

서관이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 도서관이 자관의 대중장서에 대해 서점에서 사용하는 주제 항목명을 사용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DDC는 BISAC 주제명표목이 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섬세하게 대규모 장서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DDC를 이용하는 것을 단지 물리적인 서가 배열 장치와 동일시한다면 그것은 풍부한 접근근점의 가능성을 잃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Fister 2009).

한편, 도서관과 대형서점을 비교하는 연구는 10여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 중 Raymond (1998)는 대형서점에서의 근무 경험을 토대로 하여 도서관이 서점의 방식을 무조건 따라하려는 것을 경계하였다. 피상적으로 봤을 때 브라우저에 있어서 서점의 체계가 우월한 것 같지만, 실상 서점에서 책은 종종 잘못 분류되고, 잘못 배가되고, 없어지고, 어떤 항목에 분류되었는지 알 수 없는 등 서점은 매일 분류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Raymond(1998)는 도서관의 분류 시스템은 DDC 번호 위에 일반 어휘로 된 사인, 즉 주제어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으며, 서점과 같이 이용자 친화적인 디렉토리나 지도 등 적절한 안내 도구를 제공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의 관련 연구 중에는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을 분석하여 각각의 어떠한 특징이 탐색을 용이하게 하는지, 공공도서관에 보다 편리한 분류를 제공하기 위해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오경은, 김기영 2008). 이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의 분류 방식 보다 대형 서점의 분류 방식을

도서탐색에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음과 구체적인 원인을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밝혔다. 이 연구는 미국 공공도서관에서 듀이 프리를 시행하는 동기, 즉 DDC 보다 대형서점의 분류 방식이 이용자의 요구를 더 적절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국내 환경에서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 해주는 연구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정연경, 이미화(2009)의 연구에서는 국내의 어린이 자료에 대한 다양한 청구기호 작성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컬렉션 코드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컬렉션 코드는 자료의 형태나 대상 연령, 특정 목적(수상작, 권장도서 등) 등 비주제적인 별칭기호가 될 수도 있고, 어린이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주제를 구분해 내기 위한 주제어 성격의 분류 코드가 될 수도 있다. 컬렉션 코드가 주제어 성격의 분류 코드로 기능하는 경우,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주제어 기반의 분류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용자 친화적인 분류와 서가배열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초점이 같으나, 어린이 도서로 대상으로 한정한다는 점과, DDC와 KDC 등 기존 분류 방식의 사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DDC와 서점의 분류 방식을 비교하거나 DDC 체계에 따른 분류의 한계를 발견하여 몇몇의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으나, 근래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시행이 확대되고 있는 주제어 기반 분류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주제어 기반 분류의 과거와 현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어 기반 분류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추세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나라 도서관 계에서 필요한 논의사항과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했다.

2. 주제어 기반 분류의 개념과 유형

2.1 개념 정의

본 연구에서 '주제어 기반 분류'는 주제어로 DDC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분류 방식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정확한 표현은 'DDC를 대신하거나 보완하여 분류와 서가배열의 기능을 하기 위한 주제 항목명을 이용한 분류 방식' 정도가 되겠으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긴 용어이므로 이러한 개념 모두를 '주제어 기반 분류'로 통칭하였다.

2.2 분류의 유형

2.2.1 듀이 프리

DDC 번호는 아예 사용하지 않고 해당 자료에 적합한 주제어를 일련의 주제명표에서 선택하여 부여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사례에서 흔히 '듀이 프리'라고 불리운다. 이용자는 관심 있는 주제어 서가에 직접 접근하여 브라우징을 하거나 목록 검색을 통해 특정 저작의 주제어를 검색하고 해당 주제명이 배정된 서가에 접근하여 브라우징하게 된다. 동일 주제어 아래 저자명이나 서명 등 다른 청구기호의 요소가 있는 경우 해당 저자명이나 서명의 알파벳순으로 서가 배열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요소의 배열 순서에 따라 검색한다.

2.2.2 혼합식 분류

기존의 DDC 기반의 청구기호를 유지하면서 주제어로 보완하는 방식이다. 즉, 청구기호에서 DDC 분류 번호의 윗줄에 적절한 주제어를 추가하는 방법이다. 미국 사례에서는 'combo', 'mashup' 혹은 'Dewey-lite' 등으로 불리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혼합식 분류'라고 지칭하였다. 이 방식에서는 동일 주제어를 가진 저작이 실제 DDC 분류 번호에 상관없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동일 주제어 내에서는 DDC 분류 번호에 따라 혹은 무작위로 서가배열이 이루어진다.

2.3 주제명표의 유형

2.3.1 BISAC 주제명표목 기반

주제어 기반 분류를 채택하는 여러 도서관에서 주제명표를 작성하기 위해 기반으로 삼은 것은 BISAC 주제명표목이다. 이 주제명표목은 도서 산업 분야에서 주제 정보의 전자적 전송 표준화를 위해 마련한 주제명표로서, 1995년의 초판 이후 매년 조금씩의 개정을 거쳐 2009년 11월에 제2판이 발표되었다. 이는 도서의 생산과 유통에 관계된 출판사, 도매상, 소매상, 서점, 도서관 등 관련자들이 일관된 구문으로 주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한다. BISAC 주제명표목은 서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검색 용어로, 온라인 검색에서는 접근점으로, 또한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배가 가이드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주제명표목과 분류의 역할을 결합한다고 할 수 있다 (BISG 2010).

BISAC 주제명표목은 하위표목을 포함하여 전체 표목의 수를 3,000개 정도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2판의 경우 51개의 대항목과 3,600여개의 용어로 하위 항목들이 구성되어 있다. BISAC 주제명표목은 'MAT002040 MATHEMATICS/Algebra/Intermediate'의 예에서와 같이 9개의 수문자 코드(3자리 알파벳 + 숫자 6자)와 섹션명/부표목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문자 코드는 전자적인 데이터 교환(EDI)을 위한 것이고 섹션명/부표목은 인쇄와 디스플레이를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2단계의 표목 수준을 가지며, 간혹 4단계의 표목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BISG 2010).

BISAC 주제명표목을 주제어 분류의 기반으로 사용하는 사례 도서관의 경우, BISAC 주제명표목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씩 수정, 세분하여 자관의 주제명표목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구체적으로 BISAC 주제명표목과 자관 청구기호 레이블로 사용될 주제어간의 매핑표를 만들어 분류에 사용하기도 한다.

2.3.2 DDC 기반의 범주화

BISAC 주제명표목 같은 외부의 주제 분석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 DDC 분류를 기반으로 주제 개념들을 재분류한 유형이다. 이처럼 DDC를 기반으로 한 범주화의 경우 범주화

된 항목을 나타내는 주제어로 DDC 표목의 어휘 중 일부를 차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용자가 보다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휘를 별도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Rakow 도서관의 경우 '관계(Relationships)'라는 주제로 범주화될 수 있는 자료는 <표 2>와 같은 매핑표에 의해 처리한다. 주제어는 'Relationships'이며, 이에 해당하는 DDC 분류번호 및 해당 표목은 결혼, 가족관계 내에서의 문제(사회과학 300), 의학과 건강 측면에서의 남녀관계(자연과학 600), 결혼식과 관련된 음악과 연회(예술 700) 등 다양한 주류에 해당한다. 항목명과 사인의 이름은 'DATES AND MATES'이고, 이에 해당하는 책에는 'DATES'라는 청구기호 표지(label)를 붙이게 되며, 이 책들은 서가 B74에 배가된다.

<표 3>은 Rakow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 중 <표 2>와 같은 매핑표에 의해 분류된 저작의 실제 청구번호 사례를 보여준다. 기존의 DDC 분류 체계 하에서는 300번대와 600번대에 분리 배가되었을 저작들이 'Dates and Mates'라는 하나의 주제 항목으로 범주화되어 하나의 서가에 배가됨을 알 수 있다.

<표 2> Rakow 도서관의 분류용 매핑표

서가번호	항목명 및 사인	주제어	DDC	청구기호 레이블명
B74	DATES AND MATES	Relationships	306.8-306.8999 362.8292-362.8298 392.5-392.5999 646.77-646.77999 781.587 793.2	DATES

출처: Peebles, Margaret. 2009. "Some Dewey Some Don't." *Illinois Library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8, October, Peoria Civic Center.

〈표 3〉 주제 항목 'Dates and Mates'에 해당하는 저작 및 청구기호 사례

서명 / 저자	청구기호
Making marriage work: a history of marriage and divorce in the twentieth-century United States / Ceello, Kristin.	Dates and Mates 306.810973 Ceello
It's our day: America's love affair with the white wedding, 1945-2005 / Jellison, Katherine.	Dates and Mates 392.5 Jellison
He's just not up for it anymore: why men stop having sex, and what you can do about it. / Berkowitz, Bob.	Dates and Mates 613.9 Berkowitz
Have a new husband by Friday: how to change his attitude, behavior & communication in 5 days / Leman, Kevin.	Dates and Mates 646.78 Leman

3. 적용 사례 분석

3.1 적용 방법

3.1.1 시행 시기

시행 시기는 가장 이른 곳이 2007년(Perry 도서관)이었고 가장 많은 사례가 2009년~2010년 시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모두 근래 최대 4년 이내에 시작되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의 적용 시점을 보면, Perry 도서관 및 Rakow 도서관은 신규 개관 하면서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적용했다. Albany 도서관의 Pine Hills 분관 및 Western Avenue 분관은 일시적으로 폐관 후 재개관할 때 듀이 프리를 채택하였고, Phoenix 도서관의 분관 및 Albany 도서관의 4개 분관도 재개관하는 시점에서 듀이 프리 방식을 채택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반면, Frankfort, Henry, Phoenix, Rangeveiw, Topeka 도서관 등은 도서관이 운영되는 중에 일시적으로 폐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면서 분류 체계 변경 작업을 했다.

이처럼 기존의 DDC 분류 방식을 새로운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료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신규 개관하거나 개보

수 등의 목적으로 폐관했다가 재재관하는 시점에 있는 도서관이 유리할 수 있다.

3.1.2 시행 이유

주제어 기반 분류를 고려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첫째, 자료의 검색 보다는 브라우징을 선호하는 이용자의 요구와, 둘째, 보다 직관적이고 익숙한 용어로 자료에 접근하고 싶다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는 대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었고, 이용자 편의 증진을 통해 이용자에게 도서관 이용의 좋은 경험을 갖도록 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분류법의 적용이 도서관의 가치를 증대시켜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실제로 듀이 프리 도입에 앞서 이용자 조사를 실시한 사례들을 보면, 적게는 35%(Frankfort 도서관)에서 많게는 80%(Albany 도서관, Perry 도서관)까지 자료 검색 방식으로 브라우징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Borges 2010; Carleo-Evangelist 2009; Envirozell 2008). 또한 Perry 도서관의 경우 설문에서 도서관 비이용자들이 밝힌 DDC에 대한 인식은 '이해할 수 없다, 숫자들이 나를 두렵게 한다, 내가 바보처럼 느껴

지게 한다'는 것과 같이 부정적인 응답이 대부분이었다(Fistel 2009).

또한 Lavallee(2007)은 듀이 프리를 도서관의 'Barnes & Nobling' 혹은 'Googlization'이라 칭하여 듀이 프리가 도서관의 대형서점화 혹은 구글화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밝히면서, 듀이 프리와 구글에 관한 논의는 둘 다 복잡한 시스템을 배우길 원치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적합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혼합식 분류 방법을 채택한 Darien 도서관은 DDC가 주는 검색성을 유지하면서 브라우저 장려하고자 주제어와 함께 DDC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Phoenix 도서관은 DDC는 유용할 뿐 아니라 DDC를 버리는 일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역시 주제어와 DDC를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3.1.3 장서 규모

듀이 프리를 적용한 경우 장서의 규모는 9천 권(Albany 도서관의 분관)에서 10만권에 달하는 경우(Frankfort 도서관)까지 다양하다. Frankfort 도서관 이외에는 Rangeview 도서관의 Wright Frams 분관이 85,000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어 가장 큰 규모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듀이 프리를 채택한 나머지의 경우는 대체로 3만권 내외의 장서 규모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분석 사례 중 10만권 이상의 장서 규모를 가진 도서관은 모두 DDC 분류를 유지하면서 주제어를 추가한 혼합식 분류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Rakow 도서관만이 27,000권 정도의 상대적으로 작은 장서 규모에 혼합식 분류를 사용하였다.

3.1.4 적용 범위

적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Perry 도서관, Frankfort 도서관, Phoenix 도서관, Rakow 도서관 등은 성인 장서 전체 혹은 장서 전체에 걸쳐 주제어 기반의 분류 체계를 적용했다. 반면, Topeka 도서관과 Henry 도서관은 성인 논픽션만을 대상으로 듀이 프리를 시행하였다.

Frankfort 도서관은 장서 전체에 대해 듀이 프리의 방식을 채택했으나, 성인 픽션의 경우 'MYSTERY, FANTASY, SCIENCE FICTION'의 세 가지 주제어 밖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 장서의 경우에도 주제어의 성격이 형태별 분류, 신규 장서를 위한 분류 등 주제의 성격은 거의 없는 컬렉션 코드의 역할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제어 기반 분류의 성격을 실제로 띠고 있는 주된 대상은 성인 논픽션임을 알 수 있다.

Rakow 도서관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용 장서를 포함하고 있으나, 성인용과는 별도의 주제명표를 작성하였고, 이 주제명표는 Frankfort 도서관의 경우처럼 비주제적 성격의 컬렉션 코드의 역할을 주로 한다. 따라서 Rakow 도서관의 경우 주제어 기반 분류의 실질적인 대상은 성인 픽션과 논픽션임을 알 수 있다.

Sapiie(1995)에 따르면, 과거에 새로운 분류 방식을 시도한 장서의 범위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도서관 장서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래의 경우에도 DDC의 분류법을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기존의 시도는 픽션 혹은 아동용 장서가 주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DDC로 분류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져 온 성인 논

픽션을 위주로, 더욱이 전체 장서로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DDC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근래 듀이 프리의 적용과 함께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색이다.

3.1.5 적용 과정

새로운 분류 체계의 적용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에 따르면, Frankfort 도서관의 경우 청구기호 레이블의 폰트, 크기, 구성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재개관에 준하는 업무 계획을 세웠음을 밝혔다. 또한 Albany 도서관은 한 분관에서 9,000권의 장서를 듀이 프리로 바꾸는데 2.5명의 직원이 4주 동안 작업했다고 밝혔다. Rangeview 도서관의 경우 혼합 방식의 주제어 기반 분류로의 전환을 위해 4명의 직원이 DDC를 모두 원래의 체계에서 분리하여냈고, 이후 1주간의 폐관 기간 동안 12명의 직원이 새로운 분류 체계에 맞춰 35,000권의 책을 대상으로 라벨링, 배가, 사인시스템 정비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이는 업무시간으로 1,000시간에 달한다고 밝혀진 바 있다(Fewell, Macdonald, and Mainock 2009; Fister 2009; Freas 외 2010).

한편, 새로운 분류 체계가 갖추어진 후 도서관들은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Perry 도서관에서는 듀이 프리의 의미를 단순히 분류 체계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책의 배열, 브라우징을 용이하게 하는 사인 시스템, 편안한 가구, 적절한 서가 배치까지 이용자의 책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돕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Courtright 2010). 따라서 분류 체계의 변경과 함께 제반 시설물을 갖추는 것까지 모

두 이용자의 편의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Darien 도서관의 경우, 기존에 도서관 이용이 많았던 지역 주민들은 DDC 방식으로 책을 찾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새로운 체계로 배가된 논픽션의 이용에 오히려 어려움을 느꼈다. 따라서 초기에 투어를 많이 실시하고, 또 어떤 주제가 어떤 범위의 DDC 번호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또한 층별 지도를 논픽션 서가 전체에 걸쳐 게시하였다(Ludwig 2010).

주제어 기반 분류의 적용 이후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 Frankfort 도서관의 경우 새로운 분류 체계 적용의 성공 여부를 대출통계, 설문, 이용자 의견 등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인, 분류, 전체 서가 배치 등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Rice and Conarton 2009).

진행 과정의 문서화도 중요한 작업이다. Frankfort 도서관과 Henry 도서관은 블로그를 만들어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여 동료 직원과 이용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듀이 프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도서관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Rangeview 도서관에서는 향후 직원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분류와 관련된 내부 작업을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Fewell, Macdonald, and Mainock 2009). 이처럼 새로운 분류 체계의 적용 과정에 대한 문서화 작업의 결과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내부 직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유사한 작업을 시행하려는 다른 도서관의 참고자료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3.2 분류 유형 분석

DDC의 사용 여부와 주제명표 작성의 기반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 도서관의 분류 방식을 다음의 <표 4>와 같이 유형화 할 수 있다.

①에 속하는 사례는 주제명표 작성의 기반으로 BISAC 주제명표목을 사용하고 청구기호는 DDC 없이 주제명만을 사용하는 듀이 프리의 유형이다. 듀이 프리 프로젝트를 가장 처음 수행한 Perry 도서관이 채택한 방식이며 이 도서관은 ①에 속하는 다른 도서관의 듀이 프리 및 BISAC 주제명표목의 채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③에 속하는 사례는 ①과 마찬가지로 주제명표 작성의 기반으로 BISAC 주제명표목을 사용했으나, 청구기호는 주제어와 DDC를 함께 사용하는 혼합식 분류 방식을 채택한 유형이다. ③의 유형과 ⑥의 유형은 둘 다 DDC 번호를 유지하는 경우이나, 둘 간에는 주제명표 작성의 기반이 BISAC 주제명표목인지 아니면 DDC의

유사 주제를 한데 모아 별도의 어휘로 정의한 주제명표인지의 차이가 있다. ⑥의 유형은 도서관 자체적으로 DDC 주제를 모두 분리하여 재범주화하는 작업을 거쳐 주제명표를 만들고 있으며 이 주제어는 DDC 표목의 본래 어휘와는 차이가 있다.

④에 속하는 사례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DDC 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주제어의 기반으로 DDC를 사용하는 것은 주제어회의 선택이나 범주화 작업에 있어서 별다른 이점이 없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②, ⑤는 DDC번호와 주제어 중 하나만 청구기호상 나타나고 그 나머지는 목록상에서만 보이므로 주제어와 DDC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는 구조이다. ②-1은 주제어만으로 청구기호를 구성하고, ②-2와 ⑤는 DDC로만 청구기호를 구성한다. 반면 ③, ⑥은 주제어와 DDC 번호가 모두 청구기호상에 나타난다. 따라서 DDC 번호가 주제어에 이은 두 번째 배가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표 4> 주제명표의 유형 및 분류 방식에 따른 사례 도서관의 유형 구분

주제명표의 유형	분류의 방식		혼합식 분류(주제어 + DDC 번호)			
	청구기호 유형	듀이 프리	청구기호에 주제어 또는 DDC 번호 중 하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목록에 나타냄		청구기호에 주제어와 DDC 번호 모두 사용	
BISAC 주제명표목	①	Albany Frankfort Perry Rangeview	②-1	Henry	③	Delta*
			②-2	Phoenix		
DDC의 유사 주제 군집화	④	-	⑤	Dewitt* Topeka	⑥	Darien Rakow

* Delta 도서관과 Dewitt 도서관의 경우 주제명표 작성 기반이 밝혀진 바 없으나 청구기호에서 유추하였음.

3.3 청구기호 사례 분석

주제어 기반 분류의 실제 형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The last lecture*(Randy Pausch 저)라는 자료에 대한 사례 도서관들의 청구번호의 작성 방식을 검색하여 <표 5>와 같이 분석하였다. 단, Rakow 도서관의 경우 이 자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한 주제의 책에 부여된 해당 도서관의 청구기호와 주제명표, 해당 자료를 소장한 본관 도서관의 DDC 부여 사례 등을 참조하여 청구기호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주제어의 선택이나 축약의 방식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부여된 DDC 번호나 청구기호의 구성 방식은 실제와 같을 것으로 판단된다.

Albany 도서관의 분관 중 듀이 프리를 적용한

5개관은 'SELF HELP'라는 청구기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BISAC 주제명표목의 대항목 중 하나이다. Frankfort 도서관의 'SELF-HELP GENERAL Pausch'라는 청구기호는 BISAC 주제명표목의 'SELF-HELP / Personal Growth / General'에서 대항목과 소항목을 가져와 주제항목어로 삼고 그것에 저자의 성을 붙여 청구기호를 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Perry 도서관은 BISAC 주제명표목의 최상위 항목 중 하나인 'SELF-HELP'의 축약형인 'SLFHELP'를 주제명이자 청구기호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Rangeview 도서관은 소속 분관들간에 분류가 두 가지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SPIRIT INSPIR'이라는 청구기호는 BISAC의 항목 중 "BODY, MIND & SPIRIT / Inspiration & Personal Growth"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

<표 5> *The last lecture* (Randy Pausch 저)의 분류 유형 및 청구기호 사례

도서관명	분류 유형*	청구기호 구성 방식	청구기호 및 주제어 제시 사례
Albany	①	주제어	SELF HELP
Frankfort	①	주제어 + 저자기호	SELF-HELP GENERAL Pausch
Perry	①	주제어	SLFHELP INSPIR
Rangeview	①	주제어	SPIRIT INSPIR (5건) SELFHELP (1건)
Henry	②-1	• HNF + 주제명 + 저자기호 • DDC를 주제어 중 하나로 표시	• 청구기호: HNF SELF MOUR RAUS • 주제: 921
Phoenix	②-2	• DDC + 저자기호 + 저작기호 • MARC 695 필드에 주제어 중 하나로 BISAC 주제명표목 수록	• 청구기호: 158.1 P287L • MARC 필드: 695▼aSelf-Help/ Motivational & Inspirational▼bSEL021000
Delta	③	주제어 + DDC	SPIR 004.092
Dewitt	⑤	• DDC + 저자기호 • 서가위치명	• 청구기호: 004.092 PAU • 서가위치: Psychology, Self- Help & Philosophy
Topeka	⑤	• 장서명 • DDC + 저자기호	• 장서: Health Neighborhood - Adult West Wing • 청구기호: 616.994 PAU
Darien	⑥	주제어 + DDC + 저자기호	Lives 92 PAUSCH
Rakow	⑥	주제어 + DDC + 저자기호	SELFHELP 004.092 Pausch**

* <표 4>의 유형 구분에 따름.

** 임의로 작성하였음.

며, 'SELFHELP'라는 청구기호는 BISAC 주제명표목의 항목 중 'SELF-HELP / Motivational & Inspirational' 또는 'SELF-HELP / Personal Growth / General'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BISAC 주제명표목을 기반으로 하고 듀이 프리의 체계를 채택한 사례 4곳은 모두 BISAC 주제명표목과 거의 유사한 항목명을 주제어로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enry 도서관은 청구번호로서 BISAC 주제명표목에 근거한 주제어를 사용하여 'HNF (Henry Non Fiction) + 주제명 + 저자기호'의 방식을 사용하고, DDC 번호는 목록상에서 주제어 중 하나로 취급하여 'Subject: DDC 번호'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Phoenix 도서관은 청구기호는 DDC 번호로 부여하고, 주제어는 BISAC 주제명표목 중 하나인 'SELF-HELP'를 선택하여 MARC의 695 필드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신규 개관 당시 듀이 프리를 적용했던 Perry 도서관과는 달리 Phoenix 도서관은 기존의 목록 레코드를 모두 새롭게 고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추가적인 메타데이터와 패킷 브라우저를 위해 목록을 보충하는 의미로 BISAC 주제어를 사용하고자하여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다.

혼합식 분류를 사용하여 DDC와 주제어가 모두 청구기호에 나타나는 Delta 도서관의 주제명 작성 기반은 명시적으로 밝혀진 바 없지만 BISAC 주제명표목을 기반으로 한 도서관의 사례들이 대부분 BISAC 주제명표목의 대항목수인 51개와 거의 비슷한 수(Rangeview 도서관 48개, Frankfort 도서관 56개)의 주제어 대항목을 설정하고 있는데 반해, 총 37개의 대항목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Delta 도서관의 'SPIR 004.092'라는 청구기호는 당 도서관이 설정한 37개의 주제어 대항목 중 하나인 'Spirituality & Inspiration'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제어 대항목 중 하나로 'Michigan History & Travel'이라는 지역 특징적인 주제어가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 장서를 위한 27개 항목의 주제명표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BISAC 주제명표목을 그대로 혹은 약간 수정하여 적용하는 다른 사례들과는 주제명표의 작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한편, 주제명을 DDC 분류의 보완 역할로 사용하는 두 사례 도서관간의 청구기호 방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Dewitt 도서관과 Topeka 도서관의 경우 주제어를 청구번호 레이블에 직접 붙이지 않고 청구기호와는 별도로 컬렉션명처럼 취급하여 목록상에만 나타낸다. 즉, 청구기호는 DDC와 저자기호가 결합된 형식으로 나타나고 이 책이 소속되는 주제어를 청구기호와는 별도로 Dewitt 도서관의 경우는 '서가위치'로, Topeka 도서관의 경우는 '장서명'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DDC의 유사 주제를 군집화한 주제 범주들을 칭하기 위해 Topeka 도서관은 '네이버후드(neighborhood)'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DDC의 주류(main class)처럼 가장 상위 수준의 개념 항목을 이루는 것이다.

반면, Darien 도서관과 Rakow 도서관은 청구기호 레이블 위에 주제어 스티커를 붙여 책에 직접 표시한다. 따라서 사례에서 각각 'Lives'와 'SELFHELP'와 같은 주제어가 DDC 번호와 함께 청구번호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Darien 도서관은 주제 범주를 '글레이드(glade)'라고

지칭한다.

이상의 분석과 같이 주제어 기반 분류 중 두이 프리는 주제어만으로 사용되는 단순한 형식을 지녔으나, 혼합식 분류로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구기호의 일부로 주제어를 나타내는 방식은 물론, 주제 항목명을 청구기호에는 나타내지 않고 MARC의 주제어 필드 중 하나로 삽입하거나, 역시 청구기호에는 표시하지 않고 OPAC에서 장서명으로 주제 항목명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주제어만으로 청구기호를 구성하고 해당하는 DDC 번호는 목록으로만 보여주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은 MARC 레코드를 기반으로 한 OPAC이 일반화되면서 주제어의 신규 삽입과 다양한 방식의 디스플레이가 용이해지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패킷 검색이 가능해지면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4. 평가 및 시사점

4.1 효과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밝혀진 주제어 기반 분류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가시적인 효과는 자료 이용의 편의 증진 및 그에 따른 도서 대출의 증가이다. Rakow 도서관의 관장인 Peebles는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들어왔을 때 도서관 전체에 시각적으로 펼쳐져 있는 항목명 사인에 매우 흥미를 느끼고, 쉽게 브라우징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찾고, 특정한 자료를 찾을 경우 항목명 아래에 있는 DDC 번호를 이용하여 자료를 찾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분류 방식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였다(Peebles 2010a). Albany 도서관과 Delta 도서관의 경우 고객 만족과 대출 증가라는 측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고(Conarton and Ewing 2010), Rangeview 도서관의 경우 주제어 분류를 적용한 전기서의 대출이 2배 가량 증가했고 십대 논픽션의 대출은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Oder 2010).

Perry 도서관의 경우 개관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분류체계에 대한 어떤 불평도 접수된 적이 없고 고객 만족과 독서 흥미가 증대되었음을 밝혔다(Whelan 2007). 또한 2010년 현재 기준으로 대출이 25% 증대되었고 도서관이 속한 Maricopa군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례 조사의 결과, 군내의 여러 서비스 중 도서관 서비스가 6년 간 1위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두이 프리 프로젝트를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Courtright 2010).

Darien 도서관은 주제어 기반의 분류를 적용하고 새롭게 개관한 1년 후 도서 대출이 47%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내 DVD의 대출이 20%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큰 변화이다. 특히 7세 이하를 위한 그림책을 대상으로 9개의 주제 항목을 부여하여 재분류하고 색깔 코드를 부여한 결과, 2007-2008년과 비교하여 2009-2010년의 대출이 569.15% 급신장하였다(Ludwig 2010).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주제어 기반 분류 방식의 적용이 자료에의 접근을 촉진하고 보다 쉬운 자료 탐색을 가능케 함으로서 대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공공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위상 제고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효과이다. 주제어 기반 분류를 통해 소장 자료를 이용자의 흥미에

보다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더 많은 이용자들이 도서관 장서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취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이용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 또는 증진시키게 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도서관의 활동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여 도서관의 활성화를 꾀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위상 제고를 통해 도서관 재원의 안정적 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실제로 2002년에 미국 Washington의 Stevens County에서는 인터넷이나 할인 서점과 대비하여 점점 더 진부해지고 있는 도서관에 자신들이 낸 세금이 쓰이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지역의 한 공공도서관을 폐쇄하려는 세금 납부 반대자들의 움직임이 있었다(ALA 2003). 그런데 미국 공공도서관 예산의 80% 이상은 지역의 세금 납부자에게서 나오며 이러한 의존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OCLC 2008). Ludwig(2010)의 주장처럼,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들은 세금을 납부한 데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요구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제어 기반 분류의 시도 또한 이용자의 만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도서관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더불어 얻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도서관 운영 효율성 증진의 효과이다. 간혹 듀이 프리의 움직임을 도서관 직원의 감축을 통한 도서관 예산 삭감의 시도로 보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Perry 도서관이 속한 MCLD(Maricopa County Library District)의 경우 17개의 전체 분관 중 이미 듀이 프리 체계

로 전환된 7개의 도서관을 포함하여 2010년 연내로 총 8개관이 듀이 프리 체계를 갖추게 될 터인데, 2007년 첫 듀이 프리 적용 후 현재까지 직원 감축은 없었다. 대신, 직원 수를 증가시키지 않은 채 자료의 이용을 크게 증진시키는 데 성공했다(Courtright 2010). 즉, MCLD의 경우 기존의 예산 내에서 이용자의 만족과 대출의 신장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는 간접적인 비용 절감의 효과 혹은 도서관 운영 효율 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2 문제점

주제어 기반 분류 체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먼저 DDC의 장점과 대비시켜 분석하고, 더불어 학교도서관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아직까지 듀이 프리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와 적용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공공도서관은 인근 학교의 수업 지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특정한 자료에 대한 검색능력이 떨어진다. 듀이 프리의 방식은 작은 규모의 장서를 대상으로 한 브라우징에 효과가 있으나, 큰 규모의 장서에서 특정한 자료를 찾고자 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같은 주제어 항목 내에서 주제어 이외의 다른 기준 없이 무작위로 배열되는 경우 가장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주제어 기반 분류, 특히 듀이 프리 방식의 채택을 고려할 경우 브라우징 강화를 목적으로 특정한 저작을 찾는 검색성을 다소 희생해도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둘째, 통용성이 부족하다. DDC는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30여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등 국제적으로 많은 도서관이 채용하고 있는 방식이므로 국제적인 통용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주제어의 방식을 사용하면 언어의 제약을 갖게 되고, 서로 다른 주제명표를 적용하게 되면 같은 의미라도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지게 된다. 특히 관내 외국 이민자 등 외국어를 사용하는 거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의 도서관이라면 특정 언어를 이용한 어휘 기반 분류 체계의 적용이 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제어 기반 분류는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DDC를 사용하는 많은 도서관들 간의 서지레코드 공유와 같은 종합목록의 이점에 제약을 가져오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DDC를 이용하는 도서관이라면 어디를 가더라도 익숙한 체계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에 제약을 갖게 한다. 따라서 자관의 장서나 이용자, 기관의 성격이 분류 체계의 통용성을 중요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주제어 기반 분류의 적용에 앞서 판단해야 한다.

셋째, 안정성이 부족하다. DDC는 몇몇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120여년의 오랜 시간 동안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왔으며,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안정적인 체계이다. 반면, 주제어 기반의 분류는 아직까지 효과와 유용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시도가 있어 왔으나 현실을 보면 주제어 기반 분류 사례가 DDC에 비해 그다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해왔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주제어 기반 분류의 심각한 한계가 발견될 경우, 장서의 조직 방식과 배열의 변경을 고려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게 되는 등

도서관 운영상의 부담을 갖게 된다. 따라서 주제어 기반 분류의 채택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분류체계로서의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서점의 주제 항목을 빌어 주제어를 부여하고자 하면 DDC에 비해 전체 학문영역에 대한 포괄성이 떨어지고 학제적인 분야를 다루기 어렵다. BISAC 주제명표목은 기본적으로 서점, 출판사, 도소매상 등 상업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간의 주제 정보 교환을 위해 마련된 도구이다. 따라서 이 체계는 본질적으로 학문 본연의 체계 보다는 이용자의 흥미, 판매 진작 등의 목적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학술적인 장서가 요구하는 주제명의 포괄 범위나 상세성과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에 경우에 따라서 전문 분야에 대한 분류가 미약하다는 점과 학제성의 부족이 문제시될 수 있다.

다섯째, 이용자, 특히 학생들의 정보 활용 능력 후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Pruitt-Annisette(2007)는 학교 도서관은 학교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자원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DDC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듀이 프리는 학생들에게 정보에의 접근과 평가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듀이 프리의 적용을 비판했다. 실제로 평일 오전 7-10시에는 인근 고등학교의 도서관으로서만 운영되는 Perry 도서관의 경우 듀이 프리로의 전환 후 연구 지원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Whelan 2007).

이와 같이 주제어 기반 분류는 다양한 효과와 더불어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분류 체계가 가질 수 있는 장점과 한계가 충분

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4.3 시사점 분석

주제어 기반 분류를 국내 환경에서 논의하는데 있어서 미국 공공도서관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도서관과 사서가 새로운 방식의 분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을 갖춰야 한다. 듀이 프리를 처음 적용한 Perry 도서관의 사례가 발표되었을 때, 이용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계 등 비도서관계의 반응은 대부분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정작 도서관계의 반응은 '이단적인 것', '바보 같은 것', '용서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것이었다. 실제로 Perry 도서관에서 듀이 프리 시스템의 적용을 총 지휘한 Marshall Shore는 동료 사서들로부터의 반발과 개인적인 공격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언급한바 있다(Kenney 2007).

반면, 주제어 기반의 분류를 완료하여 정착 단계에 있는 도서관들에서는 내부 직원들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Fewell, Macdonald, and Mainock 2009; Peebles 2010a). 또한 듀이 프리 방식에 대한 비판은 많이 제기되는데 반해, 혼합식 방법에 대한 사서들의 지지는 높은 편이다. 이처럼 주제어 기반 분류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도서관계에서도 이에 대한 열린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주제어 기반 분류의 도입에 앞서 미국과는 다른 국내 도서관계의 주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국내 공공도서관의 현재 여건에서 개별 도서관이 자관의 이용자 및 정보

요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새로운 분류 체계의 도입을 모색하고, 이에 따라 자관의 특색에 맞는 분류표를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들 수 있다. 정연경, 최윤경(2009)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어린이 자료를 위한 표준 분류 체계가 개발되면 이를 적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91.8%가 부정적인 대답을 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미 구축된 장서의 목록 변경 및 장비 재작업으로 인한 업무 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조직 방식에 대한 열린 논의를 진행하되, 이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현실적인 방안의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기반 분류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소요되는 자원과 시간, 이용 제한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주제어 기반 분류의 유형에 따라 벤더와의 작업 유무와 방식 등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제어 기반 분류의 도입을 고려한다면 도서관의 환경에 따른 적절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즉, 해당 도서관의 유형과 목적, 장서량, 이용자의 요구 파악과 함께 각 분류 체계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적절한 주제어 기반 분류 방식의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먼저 도서관의 유형과 목적과 관련하여 일반 이용자의 대중적인 정보 요구를 지원하는 공공도서관에서는 듀이 프리 혹은 혼합식 분류를 모두 고려해볼 수 있다. 반면, 연구 지원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에서는 완전한 듀이 프리의 적용 보다는 주제어로 DDC 번호를 보완하는 혼합식 방식의 적용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검색성을 유지하면서, 브라우징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서량 또한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내 공공도서관의 1관 당 평균 장서 수는 89,930권(2008년 기준)으로 듀이 프리의 방식을 사용한 미국 공공도서관들의 평균적인 규모 보다는 크지만, 이 보다 큰 장서 규모에도 듀이 프리를 적용한 사례들이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공공도서관에도 혼합식 분류법 뿐만 아니라 듀이 프리 방식의 적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작은 도서관 설립과 관련하여, 이 같은 규모와 대중서의 비중, 이용자의 자료 이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듀이 프리의 방식을 고려해 보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넷째, 주제어 기반 분류에 관한 논의는 사서의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듀이 프리 체계에서는 사서의 전문직으로서의 위상 약화를 우려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서점과 출판업계에서 부여한 주제어를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약간의 변형을 거쳐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주제어 기반 분류에서는 사서가 어떤 책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의 선정과 구입 단계에서 주제어가 선택되고, 이는 결국 분류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Sapiie 2005). 더구나 수서 단계에서도 사서가 아닌 벤더의 개입을 통해 주제어를 부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이렇게 분류된 책들이 분류항목 내에서 무작위로 배열되기도 한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DDC의 체계를 이해하고 그 체계에 맞게 분류하는 것만이 사서의 전문성이 확립되는 일은 아니다. 복잡한

청구기호를 부여하고 그 배열 방식에 따라 배가하는 것이 사서 전문성의 핵심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DDC가 사서에게 익숙한 방식이고 유용한 방식이지만 이것이 많은 이용자에게는 효과가 적거나 오히려 이용을 저해한다면, 이제는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판단력,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내는 창의력,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는 실행력 또한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Perry 도서관에서는 자관의 장서와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주제명표가 계속 변경되고 있으며(Courtright 2010), Albany 도서관의 사서들은 듀이 프리 체계 하에서 자료 분류에 있어 보다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보다 주인 의식을 갖게 됨을 밝힌바 있다. 이처럼 자료 조직의 측면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주제 항목을 새롭게 구분하고,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고, 주제어와 DDC의 적절한 매핑 테이블을 만들어 내는 작업들로 자료조직의 전문성이 새롭게 확대 정의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섯째, 분류의 기반이 되는 주제명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기반 분류에서 기존에 숫자로 된 분류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결국 주제어이다. 따라서 소장 장서의 주제를 빠짐없이, 적절한 체계를 갖추어 표현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내용과 어휘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주제명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출판업계와 서점계의 긴밀한 협력 하에 업계표준으로 BISAC 주제명표가 마련되어 있고, 이 표준은 OCLC 차원에서 DDC와 매핑되고(Mitchell 2010), 영국의 유사 표준인 BIC(Book Industry Communication) Subject

Categories와의 매핑에도 합의하는 등(Harblson 2009) 신뢰성 있는 주제어 분석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사례에서는 주제어의 부여를 위해 기반이 될 수 있는 주제명표가 존재하므로 도서관에서 주제어 기반이라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비교적 수월하게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서지제어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주제명표목도 거의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관련 업계에서도 주제어를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활용할만한 기존의 주제어표목이나 관련 도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주제어 기반 분류를 위한 새로운 주제명표를 설계해야 한다. 주제명표에는 DDC와 마찬가지로 사용 주기와 참조가 잘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비슷한 비중의 주제어가 여러 개일 때 우선순위를 지정해 주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분류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분류체계의 도입이 도서관 이용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이해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이용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제어 기반의 분류체계는 DDC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방식이기는 하나, 기존의 방식에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또 다시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 대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듀이 프리 방식에서는 브라우징 방식의 검색이 아닌 특정한 자료를 찾고자 하는 요구에 대한 적절한 안내나 도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혼합식 분류에서는 목록을 통해 주제어가 직·간접적으로 제시되어 DDC 분류의 보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자에게

기본적인 목록의 활용 방법을 알리고, DDC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한 일일 것이며, 부여된 주제어 혹은 DDC 번호를 검색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검색법에 대한 안내 또한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미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어 기반 분류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그 사례들 중 선정된 11개의 도서관을 분석하여 주제어 기반 분류의 유형을 나누고 기반이 되는 주제명표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사례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행 시기, 시행 이유, 장서 규모, 적용 범위, 적용 과정, 주제어 사용의 방식 등을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제어 기반 분류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과거에도 아동 도서나 픽션 등 특정 장서에 각기 다른 색깔 스티커를 붙이는 식의 컬렉션 분류법이나 DDC 분류법을 변형한 분류 방법이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특히 성인 논픽션을 포함하여 전체 장서를 분류할 때 주제어가 기존의 분류 체계를 대신하거나 보완함으로써 DDC 등 기존 분류체계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기존 서가배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정도로 전면에 등장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미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처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주제어 기반 분류에서는 주제어가 목록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정보검색을 위한 검색어, 접근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과 동시에 분류를 대체하여 물리적인 서가 배열을 결정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주제어 기반 분류는 도서관의 자료 조직 방식이 보다 이용자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점 외에도 도서관의 예산 삭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도서관이 이용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용자 편의를 우선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이러한 결과로 대출이 증가되고 이용자 수가 증대된다면 도서관의 문화 기관으로서 중요성이 제고되면서 예산 배정 및 확보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주제어 기반의 분류의 적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사례와는 다른 국내 도서관계 및 관련 업계의 특성과 현실적인 여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국내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관심과 정보 요구, 탐색 행태의 특성 역시 직접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압도

적인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 DDC와 KDC 등 기존 분류체계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다양한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한 후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분류체계 도입 여부 및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례 이외에도 주제어 기반 분류 시스템의 적용을 계획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곳이 많이 있으므로 미국 공공도서관 환경에서 이러한 주제어 기반 분류의 추세는 당분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주제어 기반 분류를 적용한 다양한 사례 도서관들로부터 새로운 분류 방식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결과가 나오면 보다 직접적인 평가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국내의 도서관계에서도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국내 환경에서 적용을 고려할 때 선행되어야 할 문제를 비롯하여 국내 적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오경은, 김기영. 2008. 문헌분류방식에 따른 도서탐색용이성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5(4): 25-42.
- [2] 윤희운. 2007. 『정보자료분류론』. 대구: 태일사.
- [3] 정연경, 이미화. 2009. 컬렉션코드를 활용한 어린이도서관 청구기호 간략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23-38.
- [4] 정연경, 최윤경. 2009.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한국십진분류법 적용 현황 및 이용자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5-26.
- [5] ALA. 2003. "Antitax group strives to shut down county library." [online]. [cited 2010. 7. 2]. <<http://www.ala.org/ala/alonline/currentnews/newsarchive/2002/august2002/antitaxgroup>.

- cfm).
- [6] BISG. 2009. "BISG Subject Headings List, Major Subjects - 2009 Editions." [online]. [cited 2010. 4. 22].
 <<http://www.bisg.org/what-we-do-0-136-bisac-subject-headings-list-major-subjects---2009-edition.php>>.
- [7] BISG. 2010. "Tutorial and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line]. [cited 2010. 4. 20].
 <<http://www.bisg.org/activities-programs/activity.php?n=d&id=47&cid=20>>.
- [8] Borges, Michael J. 2010. "Albany Public Library Drops Dewey at Branches." *The NYLA BULLETIN*, 58(1): 1, 9. [online]. [cited 2010. 9. 2].
 <http://www.nyla.org/content/user_1/NYLAWinterBulletin10.pdf>.
- [9] Carleo-Evangelist, Jordan. 2009. "It's number up, Dewey is 86ed." [online]. [cited 2010. 6. 22].
 <<http://www.timesunion.com/local/article/Its-number-up-Dewey-is-86ed-549958.php>>.
- [10] Conarton, Stephanie and Patricia Ewing. 2010. "Dewey or don't we: making library collections more accessible." 3-5 March 2010. In *Proceeding of COSUGI 2010 Annual Conference*.
- [11] Courtright, H. R. 2010. "The national impact of the Dewey-less library." *Public Libraries*, 49(4): 15-17.
- [12] EnviroSell Final Report for the Metropolitan Library System. 29 April 2008. [online]. [cited 2010. 7. 26]. <<http://www.mls.lib.il.us/consulting/pdf/EnviroSellFinalReport.pdf>>.
- [13] Fewell, Rache, Macdonald, Logan, & Mainock, Loretta. 2009. "Bringing up baby bisac: wordthink classification. Converting a library collection to a word-based classification system." In *Proceeding of 2009 CAL conference*. [online]. [cited 2010. 7. 20].
 <<http://www.slideshare.net/ilovemyanythink/bringing-up-baby-bisac-presentation-cal-2009>>.
- [14] Fister, Barbara. 2009. "The Dewey Dilemma." *Library Journal*, 134(16): 22-25.
- [15] Freas, Lynda, Molly Moyer, Marshall Shore, & Fewell, Rachel. 2010. "Cracking the Code: Beyond Dewey." In *Proceeding of PLA 2010 Conference*. [online]. [cited 2010. 6. 24].
 <http://www.placonference.org/handouts/1560_Freas_Lynda_143768_Apr01_2010_Time_012810PM.pdf>.
- [16] Harbison, Connie. 2009. "BISAC to BIC mapping." In *Proceeding of BISG Bulletin*, 21 October 2009. 3. [online]. [cited]. <http://www.bisg.org/docs/BISG_Bulletin_October2009.pdf>.
- [17] Kenney, Brian. 2007. "Desert storm." *School Library Journal*, 53(8): 9.
- [18] Lavallee, Andrew. 2007. "Discord Over Dewey: A New Library in Arizona Fans a Heated Debate Over What Some Call the 'Googlization' of Libraries." *The Wall Street Journal*. 20 July 2007. [online]. [cited 2010. 6. 26].

- <http://online.wsj.com/article/NA_WSJ_PUB:SB118340075827155554.html>.
- [19] Ludwig, Sarah. 2010. "Dewey-lite." *Public Libraries*, 49(4): 17-20.
- [20] Mitchell, Joan S. 2009. "Looking beyond shelf location: the benefits of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system in libraries." In *Proceeding of Texas Library Association Conference*, Houston, Texas. 2 April 2009. [online]. [cited 2010. 7. 10].
<<http://www.oclc.org/dewey/news/conferences/>>.
- [21] Mitchell, Joan S. 2010. "BISAC-DDC Mappings." In *Proceeding of Dewey Breakfast/Update. ALA Midwinter Meeting*. Boston. 16 January 2010. [online]. [cited 2010. 6. 22].
<www.oclc.org/dewey/news/conferences/bisac.ppt>.
- [22] OCLC. 2008. "From Awareness to Funding: A study of library support in America." [online]. [cited 2010. 7. 15]. <<http://www.oclc.org/reports/funding/fullreport.pdf>>.
- [23] Oder, Norman. 2010. "Public Library Association conference in Portland." In *Proceeding of PLA 2010 Conference: Cracking the Code: Beyond Dewey*. *Library Journal*, 30 March 2010. [online]. [cited 2010. 7. 12]. <<http://www.libraryjournal.com/article/CA6724514.html>>.
- [24] Oder, Norman. 2007. "Behind the Maricopa county library district's dewey less plan." *Library Journal*, 31 May 2007. [online]. [cited 2010. 8. 25].
<<http://www.libraryjournal.com/article/CA6448055.html>>.
- [25] Peebles, Margaret. 2009. "Some Dewey Some Don't." In *Proceeding of Illinois Library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8 October 2009, Peoria Civic Center. [online]. [cited 2010. 7. 20]. <<http://www.slideshare.net/gailborden/some-dewey-some-dont>>.
- [26] Peebles, Margaret. 2010. "RE: Some Dewey, Some Don't." 23 August 2010. [cited 2010. 8. 24]. <mpeebles@gailborden.info>.
- [27] Peebles, Margaret. 2010a. "RE: Some Dewey, Some Don't." 30, August. [cited 2010. 8. 31]. <mpeebles@gailborden.info>.
- [28] Pruitt-Annisette, Brenda. 2007. "Don't dump Dewey: school libraries need it to teach kids valuable research skills." *School Library Journal*, 53(10): 13.
- [29] Raymond, J. 1998. "Librarians have little to fear from bookstores." *Library Journal*, 123(15): 41-42.
- [30] Rice, Melissa, & Conarton, Stephanie. 2009. "Dewey or don't we: making library collections more accessible." In *Proceeding of Michigan Library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2009*, 5 November 2009, Lansing Conference Center. [online]. [cited 2010. 7. 30].
<<http://www.slideshare.net/fpld/mla-2009-2415549>>.
- [31] Sapiie, Jacquelyn. 1995. "Reader-interest classification."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19(3): 143-155.

[32] Whelan, Debra Lau. 2007. "Arizona Library Ditches Dewey." *School Library Journal*, 53(7): 14.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yong-Eun Oh, & Gi-Yeong Kim. 2008. "A Study on the Convenience in Finding Books According to Classifications: Focused on the Classifications in Public Libraries and Bookstor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5(4): 25-42.
- [2] Hee-Yoon Yoon. 2007. *Jeongbojaryobunryuron*. Daegu: Taelisa.
- [3] Yeon-Kyoung Chung, & Mi-Hwa Lee. 2009. "A Study of Simplifying Call Numbers with Collection Codes at Children's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 23-38.
- [4] Yeon-Kyoung Chung, & Yoon-Kyung Choi. 2009.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KDC) and Users' Needs in Libraries for Childre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1): 5-26.